

2023년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모집 공고 - 장기(18개월) 제21기 / 중기(12개월) 제9기 -

국립국제교육원은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어학연수와 다양한 미국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WEST)』에 참가할 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국립국제교육원장

< WEST 프로그램의 특징 >

-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은 '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근무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부의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와 다양한 분야의 미국 내 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이 가능합니다.
- 미국 국무부가 추천한 현지중개기관(SPONSOR)이 참가자의 어학연수 및 인턴십을 주선하고, 미국 현지 정착과 생활을 지원합니다.
- ※ J-1 비자 규정 상 인턴십 비허용 분야(간호학/의학)가 있으며, 참가자의 전공과 매칭이 어려운 경우 부(복)수전공 또는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매칭(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기업체 등)
- 정부 추천과 재정보증으로 비자(J-1) 발급 구비서류가 간소합니다.
- 한·미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턴기관 확정 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한 비자(J-1)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모든 참가자에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참가비 및 생활비를 소득분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금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WEST 주재원 및 재외공관을 통해 참가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선발 개요

가. 모집 프로그램

구 분	구 성	선발인원
장기 WEST	어학연수 4개월 + 인턴 8~12개월 + 여행 1개월*	30명 내외
중기 WEST	어학연수 3개월 + 인턴 6~8개월 + 여행 1개월*	43명 내외

* 인턴근무 종료 후, 출국 유예기간(30일) 내에 개별적으로 자유여행 가능

※ 장기·중기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자격

가.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미국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원 시점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장기 WEST (최장 18개월)	중기 WEST (최장 12개월)
지원 대상	· 지원 시점 기준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22.8월/'23.2월 졸업자)	
어학 성적	① TOEIC 750점 이상 또는 G-TELP Level2 70점 이상 ② OPIc IL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또는 G-TELP Speaking Level6 이상	① TOEIC 800점 이상 또는 G-TELP Level2 76점 이상 ② OPIc IL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또는 G-TELP Speaking Level6 이상
대학 추천	소속 대학의 지원자 추천 공문	

* J-1 비자 규정 상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이며, 어학연수 시작일은 현지중개기관별·어학기관별 상이 (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별도 첨부파일 확인)

※ 어학성적은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점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OPIc 시험의 경우 대학연합 OPIc 시험점수도 인정

나. 지원 제한

- 복수 국적자 및 원격대학·외국 소재 대학(교) 학생
- WEST 프로그램 기 참가자
- WEST 프로그램 기 지원자 중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자

3 지원 신청 절차

가. 공 고 일 : '23. 2. 14.(화) 10:00

나. 신청 기간 : '23. 2. 14.(화) 10:00 ~ 3. 22.(수) 17:00 ※ 이후에는 제출 불가

다. 신청 절차 <유의> 아래 과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신청이 완료됨

□ 지원자 신청 절차



□ 소속 대학 참가자 추천 (공통)

소속 대학

■ 참가자 추천

- 추천 공문 발송 기간: '23.3.23.(목)~3.27.(월) ※ 추천 마감일은 대학에서 결정

- 서류심사: 학년, 영어성적 등 자격 요건 확인

※ 확인 필: 재외국민 특별전형 여부, 취업취약계층 증명자료 제출여부, 졸업생 소득분위 증명자료 제출여부

- 공문발송: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추천

※ 첨부 필: 취업취약계층 증명자료, 졸업생 소득분위 증명자료

- ① 온라인 지원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에서 온라인지원서 등 작성·제출
- ※ 지원 서류 : WEST 온라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온라인 지원 시, 확인 가능), 개인정보동의서 (공지·문의> 공지사항> 해외인턴(WEST)공지사항> 모집 공고문>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출력 후 자필 서명> 스캔본 파일 업로드)

< 유의사항 >

- 온라인 지원 시, 학점, 공인영어성적 점수, 시험일자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서류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인 기재사항은 대학제출 증빙서류와 일치하도록 확인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류에 의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영문이름은 여권과 동일하게(대문자/성, 이름 순) 기재하고,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전화 등의 연락처로 WEST 프로그램 관련사항이 공지됩니다. 선발 기간 중 변경이 어려우니 향후에도 사용할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중개기관 면접 등 해외에서 이메일 발송 시 누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이름 이니셜이 포함된 Gmail 계정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지원 당시 받은 지원자 접수번호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는 반드시 해당 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10분위에 준하여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해당여부(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취약계층은 서류전형에서 우대되며, 누락 시 우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고, 마이페이지에서 지원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 제출

○ 구비서류(원본)를 소속 대학(국제교류 또는 취업 관련 부서)에 직접 제출

※ 대학별 신청마감일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 (공통) WEST 온라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물,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 증명서(TOEIC, OPic, G-TELP, TOEIC Speaking, G-TELP Speaking), 취업취약계층 증명자료(붙임 1 참조)/ (졸업생) 소득분위 증명자료 추가 제출(③-2 및 붙임 2 참조)

< 유의사항 >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이외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2023.2.1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어학점수는 접수마감일(2023.3.22.)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 취업취약계층 (붙임 1 참조) 증명자료가 누락된 경우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졸업생의 학자금지원기간(소득분위) 증명 자료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2 참조)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후 성적을 WEST 프로그램 학점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구 분	취득평점(GPA)	총 이수학점	평점 만점
전적 대학	A	B	C
현 소속 대학	D	E	F

※ 편입학점 계산법 : 학점(X) = [(A×B×F/C) + (D×E)] / (B+E)

예) OO편입생의 전적 대학 평점이 4.14/4.3, 이수학점이 80점이며, 현 소속 대학 평점이 3.99/4.5, 이수학점 142학점인 경우, OO편입생의 학점은 [(4.14×80×4.5/4.3)+(3.99×142)]/(80+142)= 4.11이고, WEST 프로그램 지원자의 환산평점은 4.11/4.5 입니다.

③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확인 신청

< 재학생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관련 특별 유의사항 >
 - '22년도 하반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조화결과 송수신이 불안정한 문제로 인해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소득구간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지원 시 온라인 지원(월드잡플러스)에 앞서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확인 신청 절차(한국장학재단)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소득구간이 확정되지 않는 지원자는 한국장학재단의 최근 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10분위)으로 소득분위가 통지될 예정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상화 후 최신 소득재산조화결과가 기준에 통지된 소득분위와 다를 경우 최신 소득분위로 재안내하여 정산 예정입니다.

③-1.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 휴학생, 초과 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포함

-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금을 수령하므로, 프로그램 지원 시(졸업생 제외) **소득분위 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의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 기존(재단 내 타사업)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WEST 지원자의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어학연수비대출'을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 대출 신청이 아님)
- ※ 한국장학재단 어학연수비 대출 실행 여부는 최종합격 발표 후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은 재학생·휴학생·초과학기자·수료자에 한하며, 졸업유예자는 불가, 수료자는 23년 1학기 등록 여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

○ 신청 방법 안내

1.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에 접속
 2.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지원자 본인 명의)
 3.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안내 >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대출 >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
- ※ 제출 서류 (지원기간 내 반드시 제출, 서류제출 완료까지 되어야 함)
-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 :필요서류 목록 확인 후 이미지 업로드
 - (2) 신청완료일 1~3일(휴일 제외) 후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필요 여부(서류제출 완료여부) 확인
 - (3) 선택서류(기초/차상위)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심사 진행
 - (4) 지원기간 마지막 날 신청 완료한 학생은 (3.(2)) 확인이 기한 내 불가하므로, 서류제출 완료 여부(추가 서류제출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수/선택서류 모두 제출 요망

< 유의사항 >

1. 2015년부터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 내 대상 가구원 모두가 소득 재산 조사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
2. 부모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 구성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일 세대 구성 시 제출 서류 생략)
3.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는 반드시 해당 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과 상관없이 10분위에 준하여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2. 졸업생: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확인 서류 소속 대학에 제출 (붙임 2 참조)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 (본인 명의로 발급)
- ㉡ 그 외 졸업생: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 ㉠, ㉡ 모두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신청 내역 없음 확인용)
 * 재학 중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어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신청증명서 발급 (제출처: 국립국제교육원/ 발급 용도: WEST 프로그램 지원)

4 참가비 및 정부재정지원

가. 참가비* : (장기) USD 9,730, (중기) USD 8,000

- * 전형료, 어학연수비, 인턴십 배치비, 현지중개기관비, 보험료,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 등록비
- ※ 참가비는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참가비 납부기간(은행 영업일 5일 간) 내에 미화 달러로 일시납 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재정지원내역

< 유의사항 >

1. 본인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중단(포기) 시, 지원받은 정부재정지원금은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환수됩니다.
2. 정부지원금 중 참가비는 외화(참가비에서 본인부담금만 납부)로 항공료 및 생활비는 원화로 지급됩니다.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외의 비용은 본인 부담임
 ※ 정부지원금은 합격자 발표일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을 기준으로 활동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 장기 WEST(18개월)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1=1,290원)

구 분	참가비 (\$9,730)		항공료 (2,000,000원)	어학연수생활비(최장 16주) 및 인턴생활비(최장 32주) 1,419,000원/4주	지원총액 (최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9,730	\$0	2,000,000원 (1,000,000원 ×2회/ 출국, 귀국)	17,028,000원 (1,419,000원*12개월)	31,579,700원
소득 1분위	\$9,730	\$0		16,176,600원 (1,348,050원*12개월)	30,728,300원
소득 2분위	\$9,730	\$0		15,325,200원 (1,277,100원*12개월)	29,876,900원
소득 3분위	\$7,103	\$2,627		14,473,800원 (1,206,150원*12개월)	25,636,670원
소득 4~5분위	\$5,157	\$4,573		12,771,000원 (1,064,250원*12개월)	21,423,530원
소득 6~7분위	\$3,211	\$6,519		8,514,000원 (709,500원*12개월)	14,656,190원
소득 8~10분위	\$2,238	\$7,492		8,514,000원 (709,500원*12개월)	13,401,020원

○ 중기 WEST(12개월)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1=1,290원)

구 분	참가비 (\$8,000)		항공료 (2,000,000원)	어학연수생활비(최장 12주) 및 인턴생활비(최장 24주) 1,419,000원/4주	지원총액 (최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8,000	\$0	2,000,000원 (1,000,000원 ×2회/ 출국, 귀국)	12,771,000원 (1,419,000원*9개월)	25,091,000원
소득 1분위	\$8,000	\$0		12,132,450원 (1,348,050원*9개월)	24,452,450원
소득 2분위	\$8,000	\$0		11,493,900원 (1,277,100원*9개월)	23,813,900원
소득 3분위	\$5,840	\$2,160		10,855,350원 (1,206,150원*9개월)	20,388,950원
소득 4~5분위	\$4,240	\$3,760		9,578,250원 (1,064,250원*9개월)	17,047,850원
소득 6~7분위	\$2,640	\$5,360		6,385,500원 (709,500원*9개월)	11,791,100원
소득 8~10분위	\$1,840	\$6,160		6,385,500원 (709,500원*9개월)	10,759,100원

다. 어학연수비 대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WEST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어학연수비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참가비 납부 기간에만 대출 가능)
 - ※ 재학생·휴학생·초과학기자·수료자에 한하며, 졸업생 및 졸업유예자는 불가
 - ※ 단, 수료자는 대학 기준에 따라 23년 1학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 정부로부터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편입생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문의 요망)

5 참고 및 유의 사항

- 취업취약계층, 지방대생(캠퍼스 기준), 이공계생, 전문대생 지원자는 **우대 선발**(서류 전형 시) 합니다.
- WEST 프로그램 설명회를 통해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20.(월) 설명회 영상 WEST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예정
 - ※ 유튜브 KOREAWEST/ 인스타그램 koreawest_official

- 참가자는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백신 미접종 시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합니다.

- 현지중개기관에 관한 세부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에서 **확인**바랍니다.

프로그램	현지중개기관명	누리집
장기	Cultural Vistas	www.culturalvistas.org www.koreawest.org
중기	International Culture & Career Exchange	www.icceusa.co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Exchange	www.gaccca.com www.iieex.kr

- ※ 현지중개기관별 수용인원, 면접 결과에 따라 희망한 현지중개기관과 어학연수 기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 현지중개기관 배치 결과는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시, 어학연수 기관 배치결과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확정

-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마이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6 관련 문의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 www.worldjob.or.kr

- ※ 추후 안내사항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공지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 ※ 지원기간 동안은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붙임 3. FAQ>**를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공지·문의>문의하기(Q&A)>해외인턴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지원팀

이메일: koreawest@korea.kr / 전화번호 : 02-3668-1461~4, 1466~7

붙임 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제출 증빙자료는 모집공고일 ('23.2.14.) 이후 발급 서류여야 함

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기타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범주 준용

2. 제출 서류

가. 저소득층 (본인 명의로 발급)

구분	자격명	제출 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포함	행정복지센터 및 정 부24(www.gov.kr)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행정복지센터 및 정 부24(www.gov.kr)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나. 기타 취업취약계층 (본인 명의로 발급)

구분	제출 증빙자료	발급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위) 확인	정 부24(www.gov.kr)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정의))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붙임 2

졸업생 소득분위 확인 제출서류

※ 제출 증빙자료는 모집공고일 ('23.2.14.) 이후 발급 서류여야 함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명의로 발급)

구분	자격명	제출 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포함	행정복지센터 및 정 부24(www.gov.kr)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행정복지센터 및 정 부24(www.gov.kr)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졸업생 소득분위 확인용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1분위 금액으로 지원함

2. 그 외 졸업생: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확인 내역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에서 발급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제출

붙임 3
2023년 상반기 선발 일정

일 정	내 용
2.14.(화), 10:00 ~ 3.22.(수), 17:00	▪ 참가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 (www.worldjob.or.kr) - 소득분위 확인 신청(한국장학재단 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 - 대학 추천 신청 (소속 대학, 대학별 접수 마감일 확인 필수)
3.23.(목)~3.27.(월)	▪ 대학 추천 공문 접수
4.7.(금), 16:00	▪ 서류 합격자 발표
4.15.(토)	▪ 1차 면접 (국립국제교육원)
4.20.(목), 16:00	▪ 1차 면접 결과 발표
4.21.(금)~5.10.(수)	▪ 2차 면접 (영문이력서 등 제출 및 현지중개기관 영어 면접) ※ 현지중개기관에서 면접 일정 개별 통보
5.23.(화), 16:00	▪ 최종합격자 발표 ※ 정부 재정지원 예상금액 및 환수규정 등 안내
5.24.(수)~5.30.(화)	▪ 참가비 납부 ※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충원 가능
5.31.(수)~6.2.(금)	▪ 추가합격자 선발 및 참가비 납부
6.27.(화)	▪ 출국전 사전연수 (미참여 시 프로그램 참여 불가) ※ 온라인 교육 별도
7.4.(화)~7.6.(목)	▪ 비자 인터뷰(주한미국대사관) ※ 비자 인터뷰 신청 시 비자 발급비(\$160) 별도 납부
7월 중 ~	▪ 미국 출국(개별)
8월 ~	▪ 프로그램(어학연수) 시작 ※ 현지중개기관별·어학기관별 시작 시기 상이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4
2023년 WEST 프로그램 관련 FAQ

2023년 WEST 프로그램 FAQ 바로가기 <https://url.kr/xi3a5d>

1. 지원 단계

Q1. 공인 어학성적 점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원서 마감 후 제출 가능한가요? 토플, 아이엘츠 등 다른 성적도 인정 가능한가요?

A1. 지원 자격 요건보다 어학성적이 미달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어학성적 결과도 접수 마감일 내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지원 및 소속대학에 동일한 성적표 제출 필수). 따라서 마감일 이후의 어학성적은 인정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시험성적만 인정합니다.

Q2. 서류전형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2. WEST 참여 이력 조회, 어학성적 일치 여부 등 참가제한(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지원서(자기소개서), 영어성적, 학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학점 제한은 없지만 서류심사 시 반영). 자기소개서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의식, 내용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며, 내용이 극히 불성실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우대비용 및 심사 반영 비율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Q3. 지원 자격(대상) 중, 최근 1년 이내의 졸업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본 프로그램의 **어학연수 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현지중개기관 및 어학연수 기관별로 어학연수 시작일이 다르므로 지원 프로그램의 어학연수 시작일을 확인한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 시작일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입니다. (예시) 2023년 상반기 선발은 어학연수 시작일('23년 8월)을 기준으로, '22년 8월, '23년 2월 졸업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Q4. WEST 참가 시 소속 학교에서 학점 인정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4. 학점 인정 시수, 방법은 개별 학교의 학칙에 따라 인정되므로, 소속(출신)대학 관계자(국제교류처, 취업지원처, 경력개발센터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상으로는 학점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WEST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이전에 다른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WEST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정부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타 "정부해외인턴사업" 참여 제한도 없기 때문에 WEST 프로그램을 제외한 참여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WEST 기참가자 및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6. 워크넷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을 확인했는데, WEST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네, 지원 가능합니다. 일자리 사업 기 참가자에 대한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Q7.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WEST 지원이 가능한가요?

A7.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WEST 지원이 가능하지만, WEST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지원서 작성 단계

Q8. 영문이름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8. 성(Surname)-이름(Given name) 순서로 반드시 영문철자, 띄어쓰기 칸 수와 영문 이름 내 하이픈(-) 여부 등 모든 내용을 여권과 동일하게 맞추어 모두 대문자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HONG GILDONG).
※ 합격 후 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 발급 시 지원서 상의 이름으로 발급

Q9. 학교 성적은 어느 기간의 성적을 기입하는 건가요?

A9. 입학 후 현재까지 취득한 전체학점의 평점을 말합니다.

Q10. 학적은 언제를 기준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A10. 온라인지원서 마감일 기준의 학적상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재학, 졸업유예 등

Q11. 졸업유예를 해서 재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학년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A11. 실제 학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 3학년, 6학년 등)

Q12. 어학점수 기재 시 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

A12. 성적표의 Registration Number(토익 및 토익스피킹, 6자리), Test ID(오픽, 12자리), 혹은 수험번호(G-TELP 11자리, G-TELP 스피킹 8자리)를 의미합니다. 어학시험별 등록번호 확인 방법은 FAQ 하단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3. 미국 현지중개기관(SPONSOR)이 무엇인가요?

A13. 미국 국무부에서 지정한 미국 소재의 현지중개기관(SPONSOR)은 참가자들의 J-1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비자 상태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기간 중 어학연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어학연수를 제공하고, 인턴십 배치를 담당합니다.
* 미국을 문화교류 목적으로 방문하는 교환 방문자용 비자로, WEST 참가자는 해당 비자 발급

Q14. 미국 현지중개기관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한 곳으로 지정되나요?

A14.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현지중개기관별 정보' 중 인턴십 분야와 본인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현지중개기관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지중개기관의 지정인원 및 면접 결과에 따라 선택한 곳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15. 재외국민전형 입학 여부를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15. 2017년부터 소득분위 조회에 국외소득·재산이 반영됨에 따라 **학생이 신청하신 재외국민전형 입학 여부와 소속대학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합격 후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지원서 작성 시 **해당 사실을 누락한 경우 실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10분위에 준하여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한국장학재단의 WEST 프로그램 신청 단계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Y/N)를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 학생의 국내 소득 재산조사가 개시되기 전 그리고 WEST 프로그램 신청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입학전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 소득조사가 개시된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확인한 후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입학 정보 수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16. 월드잡플러스 온라인 지원서 작성 도중 임시저장 대신 최종제출 버튼을 눌렀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A16. 온라인 지원서는 마감일 이내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지사항을 상세하게 살펴보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인턴지원현황]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 수정 및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누르고, '지원일자'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단계

Q17. 온라인 지원 시 온라인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동의서 외에도 취득한 자격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A17. 월드잡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와 개인정보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18. 학교 추천을 어떻게 받나요?

A18. 소속(출신) 대학 관련 부서에 어학증명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 후 국립국제교육원에 공문으로 추천 명단을 송부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및 제출 마감일은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음)

Q19. 학교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19. WEST 온라인지원서 출력물(자기소개서 포함), 재학(졸업/휴학)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 증명서(TOEIC, OPIc, G-TELP, TOEIC Speaking, G-TELP Speaking),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하며, 선발공고문 붙임자료 확인 요망), 소득분위 증빙자료(졸업생에 한하며, 선발공고문 붙임자료 확인 요망)이며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문의 기준요건을 확인하여 유효한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Q20.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신청(어학연수비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A20.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재단소개 > 알림 > 장학재단은 지금 탭의 '2023년 상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재단 누리집 소득분위 신청 : 재학생, 휴학생, 초과 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신청 불필요(학교에 별도 서류 제출)

Q21. 대출이 필요 없는데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2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신청은 지원서 접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실제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재학생(휴학생, 초과 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의 정부재정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미신청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신청 불필요(학교에 별도 서류 제출)

재학/졸업 구분	구분	(모집 기간내) 한국장학재단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최종 합격 후) 어학연수비 대출 실행
재학생	재학생	필요	가능
	휴학생	필요	가능
	초과학기자	필요	가능
	수료자	필요	조건에 따라 다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졸업유예자	필요	불가능
졸업생	졸업생	불필요	불가능

Q22.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는 언제 나오나요?

A22. 가구원 동의 후 약 6~8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3.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이의신청을 했는데 언제 바뀌나요?

A23.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산정 기간이 달라지며, 프로그램 일정으로 이의신청기한에 제한이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된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로 적용됩니다.

Q24.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신청을 하지 않는데 소득분위는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24.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제출하면 가장 최근 학기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를 반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재학 중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 증명을 위해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는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

Q25. 초과 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5. 초과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모두 재학생/졸업생 구분에서는 재학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소득분위 확인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 학기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
2. 수료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
3. 졸업유예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

Q26. 어학연수, 인턴기간 동안 소득분위가 변경되면 지원금 규모도 바뀌나요?

A26. 합격자 발표일 기준 소득분위로 활동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Q27. 정부 재정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7. WEST 프로그램 참가자 중 모범장학생 선발(인턴십 기간 중), 어학연수프로젝트 공모전(어학연수 기간 중), 글로벌현장학습 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TS Korea가 지원하는 WEST-TOEIC 장학금을 선발 성적 우수자 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토익&토플스피킹 성적 제출 필요/ 프로그램 시작 전 선발)

Q28. 국외 소득·재산 조사 신고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28.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은 학부생(입학예정 포함) 중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입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당시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경우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주민등록 거주 상태 코드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5. 참가비 납부

Q29. 부모님 명의로 참가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A29.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30. 참가비를 원화로 납부해도 되나요? 분할납부는 가능한가요?

A30. 참가비는 외화(USD)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행영업일 5일 내) 내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납 시 참가 포기로 간주하니, 합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합격자 안내문에 기재된 참가자 부담금(=참가비·정부재정지원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

Q31.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31.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 시, WEST 프로그램에 재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중단 시, 지원받은 정부재정지원금은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환수되니, 신중하게 참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 시, 추가 합격자 선정이 불가하므로 타인의 참여기회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최종 참가 여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ST 어학연수비 대출을 실행한 이후 WEST 프로그램 중단 시 즉시 대출 상환을 해야 하며, 미상환시 다음 학기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6. 어학연수 6 인턴십

Q32. 합격 후 출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32. 비자 발급 완료 후 어학연수 시작일 30일 전부터 개별적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Q33. 어학연수기관(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A33. 어학연수기관은 현지중개기관에서 면접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배정된 어학연수기관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34. 어학연수 기간이나 인턴 기간 조정은 가능한가요?

A34. 어학연수는 기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장기 16주, 중기 12주). 인턴십은 최소 수료기준(장기 32주, 중기 24주)만 충족하면 수료 가능하며, 최대기간(장기 48주, 중기 32주)까지 인턴십을 희망할 경우, 현지중개기관과 사전에 협의 및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Q35. 프로그램 전 기간 동안(장기 18개월, 중기 12개월) 미국에 있어야 하나요?

A35. 최장 체류 가능기간이 18개월(장기), 12개월(중기)이며, 최소 수료기준*만 충족해도 WEST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수료기준) 장기: 어학 16주, 인턴십 32주 이상/ 중기: 어학 12주, 인턴십 24주 이상

Q36. 인턴십 배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36. 현지중개기관별로 인턴십 배치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력서 및 관련 서류를 현지중개기관에 먼저 제출한 뒤, 배치 기간 동안 현지중개기관과의 상담 및 인터뷰 등을 거쳐 인턴십 배치가 완료됩니다.

• 참가자 후기

“인턴십 배치 과정 중에 현지중개기관(스폰서)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참가자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하여 인턴십 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참가자들이 동시에 인턴십 배치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이해하고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7. 인턴십을 하고 싶은 미국기업이 있는데, 현지중개기관에서 연결해 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당 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

A37. 참가자는 특정 지역 혹은 기업의 인턴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J-1 비자규정 상 개인적인 구직활동은 불가하며, 미국무부가 지정한 현지중개기관의 상담 및 인턴십 배치 과정을 통해 배정된 인턴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해야 합니다.

Q38. 특수전공인데 정확히 일치하는 인턴분야가 없다면 관련 분야로 지원해도 되나요?

A38. 참가자의 전공과 인턴십 매칭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유사 전공 분야로 매칭됩니다. 다만, 특정 인턴십 기관이나 분야는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현지중개기관별 상황에 따라 전공 관련 매칭이 어려울 시 부전공, 경험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의 인턴십이 매칭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후기

“현지중개기관(스폰서)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야 이외의 전공자가 있는 경우 전공 관련 인턴십 매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공교통, 혹은 nursing같은 특수전공은 거의 전공에 연계된 취업을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특수 전공분야에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전공의 경우 인턴십 전공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39. 인턴십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나요?

A39. 간호학/의학 전공자의 경우 환자 등과 직접 접촉(medical patient care or contact) 하는 인턴십은 J-1 규정에 의거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Q40.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의 인턴십도 가능한가요?

A40. 인턴십은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수전공 또는 다른 경험이 있는 경우 인턴십 배치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턴십 배치 분야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중개기관과의 상담을 통한 배치과정에서 결정됩니다.

Q4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비대면 인턴십으로 할 경우가 있을까요?

A41. J-1 비자 규정에 따라 참가자는 주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치된 인턴기관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중 일부를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42. 인턴십은 무급으로 진행되나요?

A42. 인턴십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턴십은 인턴기관이 참가자에게 기업문화 체험 및 직무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고, 인턴기관의 재량에 따라 교통비 등을 보조하거나 인턴십 중에 유급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나 참가자별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Q43.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 중 취업이 되면 돌아오지 않아도 되나요?

A43. WEST 프로그램은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J-1 비자를 통해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하게 되며, 참가자는 미국 국무부 규정에 의거 현지 프로그램 종료 후 2년간 본국(=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귀국한 후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현지에서 취업 결정 시에도 반드시 귀국하여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해야 합니다.

Q44. 정부 지원금 외에 개인 경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A44. 프로그램별 기간, 거주 지역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상이합니다. 어학/인턴생활비 지급기간(8주 간격으로 지급), 물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필요한 경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기정착금과 현지 생활비 등은 거주지역과 개인의 소비 습관 및 생활 방식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 참가자 후기

“실제 생활비와 경비는 예상보다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하우징 가격과 물가 차이가 큰데, 인턴십 배정을 받을 당시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으로 배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월 1000불에 가까운 월세를 내야 했을 때 많이 막막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지원할 당시 미국 전역에 인턴십 배정이 가능한 것을 유념하고, 그에 따른 자금 준비를 선별 시부터 미리미리 챙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Q45. 비자 유효기간(Expiration Date) 내에 여행을 하면 되나요?

A45. 아니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참가자는 인턴십 종료 이후 주어지는 출국유예기간(30일) 내에 미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만료된 비자로 출국유예기간 동안 미국을 출국한 경우, 동일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Q46. 미국 출국 후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46. 프로그램 중단은 불가피한 개인사유에 의한 자의적 중단과 규정 위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강제 중단으로 나뉩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할 시, 해당 현지중개기관에서 안내 받은 기한 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며,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불가 및 소속학교에 미수료자 통보, WEST 프로그램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환수금액은 프로그램 중단 사유를 참가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결정됩니다. 고의성 있는 사유(규정 위반, 어학연수 출석률 미달, 무리한 요구·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인턴배치 실패 혹은 인턴십 해고 등)는 정부지원금 전액(출국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인턴 생활비)을 반납해야 하며, 고의성 없는 사유(참가자 본인 및 가족의 건강, 경제적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는 과지급된 어학연수/인턴 생활비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7. 프로그램 수료 후

Q47. WEST 종료 후, 바로 미국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A47. 프로그램을 수료 후 개별상황에 따라 미국으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자 발급 절차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문화교류 비자에 속하는 J-1비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본국(한국)에서 2년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년 본국거주의무(two year rule)를 다하지 않고, 미국에 취업, 주재원으로 파견, 미국 시민권자와의 약혼/결혼의 사유로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와 주미한국대사관(지역별 영사관)을 통해 2년 본국거주의무 면제 신청(웨이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이 웨이버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중 하나인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WEST 수료자에 한함). 다른 국가 입국 시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 거주 후에도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2년 본국거주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Q48. WEST 수료 후 다음 참가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48.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과 WEST 프로그램 설명회에 멘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및 멘토 모집 소식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또는 WEST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토로 활동 시에는 소정의 멘토 수당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멘토링, 취업멘토링, 사전연수멘토링 등

별첨

어학시험별 등록번호 식별 안내

< TOEIC & TOEIC Speaking >

등록번호는 성적표 내 숫자 6자리로 구성된 'Registration Number'를 의미하며, 아래 이미지 내 분홍색 상자 표시를 참고

The image displays two sample TOEIC score certificates. The left certificate is for the Listening and Reading sections, showing scores of 375 and 395 respectively, with a total score of 710. The right certificate is for the Speaking and Writing sections, showing scores of 120 and 150 respectively, with a total score of 270. Both certificates include the test taker's name, registration number, and test date.

< OPIc >

등록번호는 성적표 내 12자리(숫자 1자리, 알파벳 대문자 1자리와 숫자 10자리 순서로 구성)의 'Test ID'를 의미하며, 아래 이미지 내 분홍색 상자 표시를 참고

인용서발급번호 : 인용서번호 : 원본

홍길동 (HONG GIL DONG)

1A0733131277

1979/08/01 2013/12/07 OPIc(English)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OPIc (ACTFL Oral Proficiency Interview - computer) and has been rated

ADVANCED LOW - ENGLISH according to the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2012

Executive Director Date of Issue 2013/01/04 Date of Expiry 2014/12/06

ACTFL 등급도

ACTFL Certified Rating System

OPI

- Distinguished
- Superior
- Advanced High
- Advanced Mid

OPIc

- Advanced Low
- Intermediate High
- Intermediate Mid
- Intermediate Low
- Novice High
- Novice Mid
- Novice Low

바코드자리

※ 본 인용서는 영자발급으로 발급되었으며, OPIc 용제까지 (www.opic.or.kr)에서 전용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사자성명

수험번호/영년월일/용사일/시험정보

성책(등급)

발급일/성적만료일

용사자 등급에 대한 설명

< G-TELP >

등록번호는 성적표 내 국문 성함 아래에 기재된 총 11자리의 숫자(앞 4자리+뒷 7자리)로 구성된 '수험번호'를 의미하며, 아래 이미지 내 분홍색 상자 표시를 참고

한국 G-TELP 위원회 G-TELP 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Overall Proficiency reflects the number of skill areas in which you have achieved 75 percent or better.

Mastery = a score of 75% or more in three skill areas (two for Level 1)

Near Mastery = a score of 75% or more in two skill areas (except Level 1)

No Mastery = a score of 75% or more in less than two skill areas

Your performance in each of the skill areas is shown in the profiles below.

PROFILE A : Skill and Task/Structure

Skill Area	Task/Structure	Score	25%	50%	75%	100%
Listening	NARRATION	43 %				
	FORMAL MONOLOGUE	57 %				
	NEGOTIATION PROCESS	43 %				
Reading and Vocabulary	HIST ACCOUNT	71 %				
	NON-TECH ARTICLE	85 %				
	ENCYCLOPED ENTRY	57 %				
Grammar	PROGRESSIVE TENSE	100 %				
	GERUNDS/INFINITIVES	80 %				
	UNREAL COND/SUBJUNC	100 %				
	MODAL AUXILIARIES	100 %				

PROFILE B : Question Information Type

Score (Correct/Total)	Description of Question Type
8 / 19	Literal information questions ask the examinee about information which is explicitly stated in the passage.
5 / 7	Inferential information questions ask the examinee to deduce information which is not specifically stated, but which is implied by the passage.
8 / 13	Vocabulary questions ask the examinee to select synonyms for words occurring in the context of the reading passages.
5 / 7	
6 / 8	

Each of the scores above shows the ratio between the number of questions you answered correctly and the total number possible for each question type.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G-TELP™ G-TELP KOREA

0002-0000030

DATE: 2016-10-28

Total Score : 214

You have answered 72% of all the question on the test correctly.

홍길동

890163-0000000

< G-TELP Speaking >

등록번호는 '수험번호'를 의미하며, 성적표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TELP 누리집 내 해당 시험 접수 정보에서 확인 가능.

수험번호는 총 8자리(알파벳 5+숫자 7개)로 구성

WEST Story

WEST 프로그램 참가 후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

CONTENTS

- 잘 먹고 잘 살아 보려는게 단기 9기 / 박민주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 19기 / 정필준
-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해 준 WEST 중기 3기 / 이정인
-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단기 8기 / 장금주

잘 먹고 잘 살아 보려는 게

단기 9기 / 박민주

[어학원 생활]

주어진 시간과 자원 100% 활용하기

어학원 생활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WEST 프로그램 참가자라면 필수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F2b 클래스에 소속되어 수업을 들었다.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에서 WEST 참가자가 들 수 있는 클래스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클래스였지만 사실 기존의 영어 실력을 성장시키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졌다. 수업의 구성은 말하기, 쓰기, 듣기를 고루 다루지만, 깊이가 아쉬웠다. 같은 F2b 클래스 안에서도 학생들의 실력 편차는 적지 않은 편이고, 강사도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엄격한 평가나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고, 수준에 맞든 맞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 최대한 성장을 꾀하려 노력하는 게 좋다.

어학원 생활을 가장 알차게 할 수 있는 팁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질문을 많이 하자.

어학원 강사들은 이미 우리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례로 본인은 'war', 'word', 'wall', 'world' 단어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이 궁금했다. 그러나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무 쉬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동기들에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비취지면 어떡하나?'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었지만, 항상 정확하게 발음해보고 싶었다. 결국 용기내서 질문을 했고, 강사는 꼼꼼하고 명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었다. 귀중한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평소에 자신이 답답했던 사소한 질문들도 소리 있게 정리해서 질문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열의를 가지고 친절히 답변해줄 것이다. 꼭 영어 관련 질문이 아니어도 좋다. 우리 F2b반 학우들은 단지 영어와 관련된 것들을 넘어서 문화적인 것들, 팁 문화, 대중교통, 워싱턴 D.C. 지역별 차이점, 미국 전역에 분포된 사투리, 영화 등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고, 포괄적인 문화적 지식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자.**

2. 효율적으로 출석하자.

나의 어학연수 수행지인 워싱턴 D.C.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즐길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분명 구석구석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이 있다. 수업 결석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프로그램 최소 수료 기준에 잘 맞춰서 긴 주말을 활용해 근교에 여행을 다녀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배우는 것이다. 공부를 알차게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노는 것도 중요하다. 단, 최소 수료기준을 미달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휴가를 가지는 게 좋다. WEST 참가자의 어학연수 최소 수료 기준은 출석률은 85%이며, 이를 미달하는 경우 인턴십을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 덧붙여 몸이 아픈 경우 등 출석을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개인 휴가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3. 친구를 많이 만나보자!

워싱턴 D.C.에 있는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는 영어 및 다른 언어들을 배우기 위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는 진정한 문화적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그들은 파티를 주최해 줄 것이고, WESTie들을 초대할 거다. 파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파티 문화를 경험해 본다는 취지로 한 번쯤 참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영어라는 단일 언어로 문화 교류를 하는 경험은 어학원에서만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인턴 활동을 시작하고는 대부분 미국에서만 살아본 사람들과 일하기 때문에 어학원처럼 많은 문화를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워싱턴 D.C. 길거리 인터뷰>



< WEST 동기들과 함께 >



< 어학원 생활 시 숙소 >



< 숙소 이동 >

[인턴십 배치 그리고 여행]

행복은 비행기 티켓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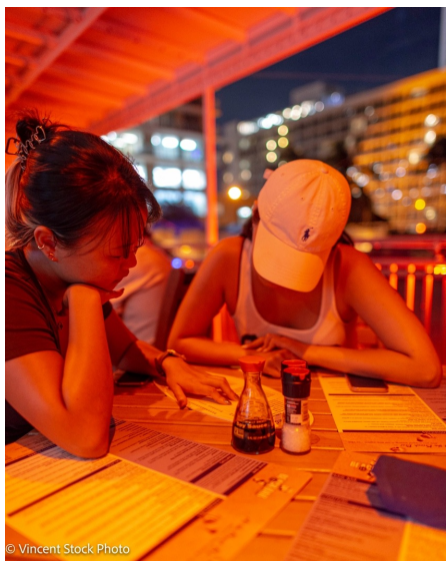
사실 WEST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영어실력이었지, 다양한 여행지를 방문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인턴 배치가 늦어져서 시간이 붕 뜨게 됐고, 어학원 수업이 종료되고 아직 인턴 배치를 받지 못한 친구와 함께 마이애미를 여행하게 됐다. 함께 숙소를 잡으면 숙소비가 저렴하기도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단 일 시작 전 추억이라도 쌓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게 짐을 챙겨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로 떠났다. 조바심도 조금 있었다. 하지만 스폰서 기관에서 이력서를 검토해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일단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도착한 마이애미는 정말 아름다웠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구한 작은 아파트였다. 낮에는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미술 비치에 가서 헬스도 했다. 밤이 되면 바에 가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칵테일을 마셨다. 마이애미는 여유로웠다. 해변이 가장 큰 즐길 거리였기에,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다. 여유로운 장소에 머물다 보니 마음도 여유로워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항상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는 낯선 여유로움. 처음에는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이내 최선을 다 한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 밖에 없음을 알고는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 여유를 가지고 나니 아름다운 풍경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렇게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마이애미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니, 결국 스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후 근무 확정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에 위치한 공정무역거래 여성 의류회사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게 됐다.



< 마이애미 여행1 >



< 마이애미 여행2 >



< Chicago Global Fest에 참여한 직원들 >



< 홈페이지 게시된 제품 사진 >



< 제품을 착용한 직원들 사진 >

[인턴십]

예상치 못했지만 훌륭한

사진 찍기가 취미였기에 모든 전문 촬영 장비를 가지고 미국에 왔다.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제품 촬영과 모델 촬영 작업을 도와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고, 지금까지 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회사 분위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훌륭한 근무 환경이었다. 사담이 없는 미국 근무환경이라 예상했지만 매일 같이 정치, 문화, 예술에 관해 폭 넓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의류 산업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었다.

하고 싶었던 언론 일에 종사하지는 못했지만,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아마 배치가 늦어진 만큼 어떤 일이든 열정 있게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턴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라도 도전해보려는 태도**다. 직원들은 끊임 없이 인턴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창의적이고 완벽한 답변을 기대하며 인턴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 취지는 인턴이 그 인턴십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실제로 중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본인의 의견을 물어봤고, 답변 중에는 실제로 회사의 운영 방침에 적용된 것도 있었다. 주저하지 말고 작은 생각이라도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거침 없이 말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결코 인턴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후 평가에서 '생각을 풀어서 말해주는 적극적인 태도가 Awesome 하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인턴으로 더 많은 생각을 풀어낼수록, 직원들이나 임원들은 그러한 주장에 더 많은 생산적인 피드백을 줄 것이고, 그러한 피드백은 결국 개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턴십의 주 목적은 노동이 아닌 프로그램 참가자로 얻어야 하는 경험과 지식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 19기 / 정 필 준

나에겐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던 해외인턴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모토이자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가장 마음속에 담겨 있는 말이다. 내가 WEST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여하게 된 계기도 이 문구와 비슷한 맥락을 띄고 있다. WEST에 참여하기 전 해외취업, 해외인턴십에 대한 내 생각들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영어를 정말 잘 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이다. 나는 학창시절 다수는 아니었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었다. 만점에 가까운 토익점수와 같은 수업을 들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음, 유창한 영어회화 실력은 내가 그야말로 특권이라는 정의를 쉽게 내리게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혼자 스스로 내렸던 바보 같은 정의들은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20살 대학교를 처음 입학했던 때부터 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찾아오면 혼자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곤 했다. 저렴한 숙소를 찾아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에서 숙박을 하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서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 영어를 사용하며 각각 다른 문화와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단순히 여행에서 주는 편안함과 재미를 넘어 좀 더 넓은 시야와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고취 시켜주었다. 이러한 경험들과 자신감은 WEST 지원으로 이어졌다. 나는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도 영어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나보다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직접 부딪혀보고 내 인생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내가 미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WEST 프로그램 지원을 주저하는 후배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며 이 글을 시작하고 싶다.

[인턴십 배치]

셀 수 없는 Resume 다듬기

WEST에 W, 즉 Work에 해당하는 인턴십은 미국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나의 스폰서였던 Cultural Vistas를 통해 인턴십 배치가 이루어졌다. 내가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내 최종 목표이자 꿈인 공기업 입사에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기업 해외 사무소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내 목표이고 내 가치관과도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었다.

미국에 출국하여 어학연수 생활 도중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스폰서 Cultural Vistas에게 내가 희망하는 회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스폰서를 통해 인턴십 배치를 결정짓는 구조로 내가 회사를 선택할 수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너무 달랐던 미국식 Resume(이력서)와 Cover Letter(자기소개서)를 정말 셀 수 없이 수정하고 검토했으며,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며 인터뷰를 기다렸다. 회사의 오퍼를 받는 시기 또한 동기들마다 제각각이었기에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미국 정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 D.C. 지역에 위치한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 OPM(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D&I(Diversity&Inclusion)부서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합격 메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인턴십]

'꿈'을 위해 '미국'에 도전하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질 무렵 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 OPM에서 내 인생 미국 첫 인턴생활에 발을 내딛었다. 긴장감과 설렘을 안고 지하철을 타고 바쁘게 걷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조금은 낯선 내 모습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흐뭇하기까지 했다. OPM은 미국 전역의 인사관리 개선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 중 내 부서는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을 다룬다. Diversity&Inclusion은 말 그대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인종 뿐 만 아니라 종교, 성적취향(LGBTQ) 등 정말 다수의 분야에서 각각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부서는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다양성을 고려한 이상적인 조직문화의 확립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다.

여기서 내가 했던 역할은 생각보다 다양했다. 프로젝트 개념의 업무가 많아 타 정부기관들과의 미팅이 정말 많았는데 미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 준비, 정리하고 미팅이 끝난 후에는 매번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미팅이 있는 날에는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해 회의 자료들을 준비하기도 했고 영어에 아직 서툴렀던 터라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 회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단어들을 찾는데 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적도 많았다. 영어가 서투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는 인턴십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질문이 생기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조금 과장해 어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팀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업무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같이 점심을 먹으며 여행정보, 취미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말이다. 어학연수 시절부터 꾸준히 참여했던 외국인들과 축구 스포츠 활동,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교환 모임, 그리고 미국 공항 내 Travelers Aids라는 기관에서 했던 봉사활동까지...



< 정부기관 회의에서 WEST와 나를 소개하는 모습 >



< 연말 팀 회식 후 기념사진 >

내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인턴십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이 시점에서 예비 웨스티들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열정과 자신감**이다.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막상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 영어 표현이 맞을까?', '내가 혹시 말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부딪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운이 좋게도 언제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일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은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임이 분명하고 더 나아가 보람찬 미국 생활에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미국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미국의 회사문화는 어때?",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야?"였다. 그만큼 미국의 업무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나 또한 그랬듯 예비 웨스티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느낀 미국 업무환경은 말 그대로 'Perfect'였다.

가장 먼저 매우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내 부서는 나를 포함해 총 11명의 팀 단위로 움직였는데 특정 정부기관들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개념의 업무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업무의 50% 이상은 회의를 하며 보냈다. 각자 직급이 존재했지만 처음 인턴이었던 내가 첫 회의에 참가했을 때 각 동료의 직급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나에게 있어 이러한 부분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턴 신분으로서 나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였다. 각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으며 자칫 소외될 수 있었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더불어 유연한 근무형태 또한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주 2-3일을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을 최대한 많이 보고 즐기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사의 배려로 나는 금요일을 제외한 주 4일을 출근했고 멀리 여행계획이 있으면 휴가 또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팀원들의 개인 사정으로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거주지와 직장과의 통근 시간 등 본인이 맡은 업무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연하게 근무 날짜를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타 정부기관과의 중요한 미팅을 제외하곤 **팀 회의의 경우 'Teleconference'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매우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근무 형태라고 생각했다.**

[여행 그리고 마치며...]

상상이 현실이 되다.

누구나 '미국'하면 떠오르는 풍경들이 하나쯤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들은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모두 현실로 바뀌었다. WEST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해도 무색할 정도로 미국에 오래 머물면서 '여행'이라는 그 두 글자는 내 마음을 항상 두근거리게 했다.

호려함이 가득했던 뉴욕, 정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 D.C의 백악관과 기념탑,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던 필라델피아, 입이 한동안 다물어지지 않았던 대자연의 선물 나이아가라 폭포, 젊음과 아름다움이 공존했던 마이애미와 미국 최남단 키웨스트까지 나에게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며 자산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 나는 미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소하지만 진짜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들도 추천하고 싶다.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열리는 모터쇼, 스틸 넘치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미국 근교 놀이공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개인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Turo'를 이용한 근교 당일치기 여행, 박물관 방문 등 매주 주말 혹은 평일에도 관광지가 아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더 깊은 진짜 미국을 즐기는 것도 분명 새로운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체험 수기를 마치며 짧고도 긴 미국 생활을 해봤던 내가 말하는 미국은 좋은 점도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상 '세계 선진국'이라는 단어에 감춰진 민낯 또한 분명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편했던 대중교통, 체계적이지 않은 의료 시스템, 하우징 문제, 인종차별까지 셀 수 없이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기에는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WEST 프로그램 어때?"라고 물어본다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단순히 스펙을 쌓으러 오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며 매 순간이 도전이라 느껴질 만큼 낯선 땅인 미국에서 치열하게 살아본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미국 생활은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처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고 주저하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미국 출국 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한 사전연수에 참여했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오셨던 분이 웨스티들을 '작은 외교관'으로 비유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 올지 모르는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WEST에 투자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질문을 후배 참가자들에게 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해 준 WEST

졸업, 그 후

"Not all those who wander are lost"를 인생의 모토로 혹은 변명으로 앞세워 졸업 후에도 방황하며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저는 어느 날 'WEST 프로그램'이라는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중기 3기로 WEST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학기 중 교환 학생과 워킹 홀리데이로 짧은 외국 체류 경험이 있던 저는 귀국 후에도 호시탐탐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때문에 늘 입맛을 다시며(?) 해외 경험에 눈독 들이고 있던 찰나 운명처럼 찾아온 WEST 프로그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제가 결국에 WESTie가 될 수 있었던 건 언제나 WEST 프로그램을 주시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출국, 그리고 어학연수]

WESTern MOST! 서쪽 끝으로 가다!

ICCE 스폰서에 배정된 저는 가장 서쪽에 위치한 Santa Monica로 어학연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Venice Beach 등 그림 같은 해변과 쾌적한 날씨,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던 아름다운 도시에서의 4개월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인 영어 공부를 베이스로 해서 어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이때 어학원을 다니며 영어공부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타모니카에 있던 4개월 동안 할리우드, 패서디나, 산타바바라, 솔뱅, 리버사이드 등 캘리포니아 등지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국립공원, 라스베이거스 등을 여행했습니다. 또한, 어학원에서 만난 각국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과의 어울릴(hangout)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위스, 대만, 터키, 브라질,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온 친구들을 만나 저는 떡볶이를 요리해주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친구들에게 스케이트보드 타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 페스티벌, 밋업,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어학연수 생활 중 도시 내외의 여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어학원 학생들과 함께 >



< 어학원 수료식 날 티처와 >



< 어학원 학생들과 함께 >



< ICCE 주최 LA Works 자원봉사 >

[인턴십 배치]

동화 같지만은 않던 현실

그러나, 제가 겪은 WEST 프로그램 속 모든 에피소드들이 동화 같지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턴십 배치에 남들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로 제 전공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국내 대학의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인턴십 오퍼이기에 전공 기반 배치가 다소 어려워 어학원 동기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어렵게 기다려 받은 첫 번째 오퍼마저 배치된 회사의 인원 문제로 무산되며 다시 기약 없이 두 번째 오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가 이미 어학원 수업이 모두 끝나고, 다른 동기들은 모두 배치된 회사로 이동하고 난 뒤였기에 저는 매우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우징 계약, 체류비 등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산타모니카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도시에 남아있던 동기들과 여행을 가는 등 남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스폰서였던 ICCE의 노력으로 최종 인턴십 배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하게도 Thanks-giving day에 휴가 차 캘리포니아에 와있었던 뉴욕의 한 스타트업 CEO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합격 결과도 듣기 전에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뉴욕에 떨어지고 4일 차가 되던 날 저는 정식으로 브록클린 덤보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의 인턴이 되었습니다. 마치 Thanks-giving day에 찾아온 기적처럼요!

[인턴십]

꿈에 그리던 뉴욕 생활, 녹록치 않은 인턴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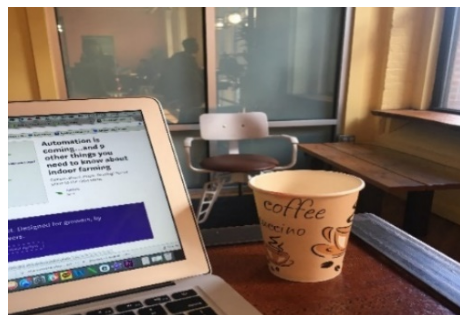
꿈에 그리던 뉴욕 브룩클린에서 인턴생활을 한다는 행복도 잠시, 미국에서의 인턴십은 그리 녹록치 않았 습니다. 저를 제외한 직원 모두가 원어민이었으며, 제가 맡은 직무는 언어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Social Marketing이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교환학생과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무력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회 의에서 오가는 대화의 반도 못 알아듣기 일쑤였고, 하물며 영어로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것에 곱절은 힘에 겨웠습니다.

낮선 환경, 부족한 영어실력 등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저 자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를 구사하 더라도 완벽한 문장으로 내뱉기 위해 여러 번 생각하다 타이밍을 놓치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저의 미국인 동료들은 서툰 저에게 굉장히 관대했고, 저 또한 제 생각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 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사에게 실수하더라도 무작정 질문했고, 못 알아듣는 한이 있어도 동료에게 주말 에 뭘 했냐고 먼저 스몰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냥, 일단, 물어버리기로 했습니 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기로는 미국도 둘째가라면 서럽더군요. 표현이 안되면 표정으로 표현했고, 적극적인 로 행동했습니다. 또 당시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던 해였는데, 동료들과 채팅으로 올림픽 기간 중 탄생한 가장 유쾌한 meme(오른기 안경 밑에 선글라스를 쓴 한국인 선수)을 사용한 사람에 최다 득표로 뽑히며 상품을 받 기도 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입뿔로, 말이 안되면 맘으로 승부보면 되는 것임을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 업무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셜 마케팅은 언어능력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일정한 템플릿을 활용해서 포스팅하는 어떠한 루틴이 존재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표현과 문구 를 찾아 응용했고, 또 적합한 사진과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부지런히 포스팅 한 지 6개월, 회사의 SNS 팔로워는 초기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고 이부분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CEO에게 치하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턴십 활동을 종료할 때쯤엔 회사의 블로그에 제 이름으로 인턴활동 후기를 작 성해 한 페이지를 할애해 기고할 수 있을 만큼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 슈퍼바이저 마이클과 함께 >



< 자주 업무하던 장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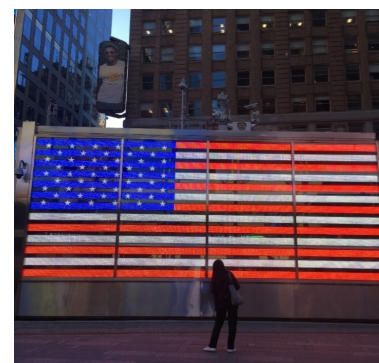
[귀국 후 취업]

나의 이정표 찾기

다사다난했던 12개월의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귀국한 후 저의 이정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취 업이라는 숙제 앞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전에 교환학생과 워킹홀리데이의 즐거운 기 억을 잊지 못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녀왔고, 로망이었던 해외 취업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저의 강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제가 속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가장 서쪽 해안에 위치한 영중 도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을 힘차게 떠오르는 비행기와 바쁘게 오가는 여객을 마 주하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막연했던 해외취업을 구체화 할 수 있었고, 제게 잘 어울리는 곳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영어를 업으로 삼을 만큼 완벽하게 구사하 진 못하지만 활용하기를 좋아했고,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지만 한국과의 연결과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WEST를 만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이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일, 영어, 공부와 여행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 또한 정립한 것입니다.

제 생애 가장 화려한 색채로 20대 마지막 기억을 물들여준 WEST 프로그램. 제가 앞서 저의 여학원 생 활이 마냥 동화 같진 않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또 인턴 생활 중 힘들었던 적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저에게 인생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가장 힘들었던 기억 둘을 꼽으라면 아마 두 기억 모두 WEST 프로그램에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들춰보며 웃음 짓고, 그때의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WEST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또 도전할 것입 니다. WEST 프로그램을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또 외 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 행복한 기억과 다채로운 경험, 그리고 아름다운 추 억을 선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글을 쓰기 위해 오래전 사진첩을 뒤적이며 밀려 드는 행복한 기억으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런 선물 같은 순간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두려워 말고, 아니 두렵지만 도전하세요. 저도 또 다른 도전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다른 항해에서 만나요!



< 타임스퀘어에서 >



< 회사 소셜채널에 기고한 나의 인턴활동 후기 >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단기 8기 / 장금주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

나의 해외 인턴 생활은 국제학과를 다니면서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학과 특성 상 과의 80% 이상의 친구들이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지만 나는 20%에 해당되는 토종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늘 해외에서 살아본다는 것이 궁금하였다. 그러다 마지막 학기에 우연히 학교 공지에 올라온 WEST 공고문을 보게 되었고 나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다.

미국 인턴십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한 가지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였다. 사실 출국 직 전에는 간절히 원했던 WEST 프로그램의 합격과 가고 싶었던 회사의 인턴 합격은 뒤로 한 채 두려움이 가득했다. 먼 땅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것부터 결코 만만한 관문이 아니었고, 영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 모든 게 몰래 카메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 인턴십이 두려웠던 나를 뒤로한 채 나는 미국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스타트업에서 인턴십까지 하게 되었다. 매주 저녁마다 수다 떠는 미국인 베스트 프렌드도 만들 수 있었고, 회사에서는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회사 시스템에 올라가는 성과도 이룰 수 있었다. 나의 글을 통해 미국에서 크고 작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음 참가자들이 어떤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는 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인턴십 외 교류활동]

60명의 외국인들과 한 집에서 살게되다.

60명의 외국인들과 셰어 하우스에 살기로 결정 내린 것은 쉬운 결심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기숙사 생활 한번 해보지 않았던 나에게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낯선 사람들과 3달이 넘게 같이 사는 게 가능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들만 생각했다. 첫 번째,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것. 두 번째, 해외 거주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확장시킬 것. 세 번째, 회사의 인턴으로서 업무 경험을 쌓을 것. 이 세 가지였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내가 편한 한인타운이 아닌 불편한 셰어하우스로 가야 하는 이유들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 있게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겐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최고의 경험으로 남아있다.

내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 비밀을 공개하고자 한다.

한국 음식과 문화로 친해지는 작전

처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였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다 보니 새로운 사람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아서 말을 거는 것부터 어려웠었다. 또 초반에는 영어도 어색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단지 나와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말 거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초반에는 주방이나 거실에서 친구들이 대화하고 있으면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색했기 때문에 내 볼일이 끝나면 후다닥 올라가 내 침대로 도망치곤 했는데 2주정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말을 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저녁을 만들면서 흑인 친구인, Emmanuel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 Emmanuel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만든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날부터 나는 한 시간 일찍 부엌으로 내려가 한국 음식을 만들었고 내가 만든 음식을 친구들에게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만든 요리들을 좋아해주 덕분에 저녁 시간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내 요리를 기다리는 친구들까지 생겼다.

내가 용기 내서 적극적으로 다가간 만큼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한류 문화의 영향력에 실감할 수 있었다.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위상이 미국에서 굉장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중에는 매일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한국 디저트인 빙수도 함께 먹으러 가게나 하구시 피자바에도 같이 간 정도로 친해질 수 있었다.



< 저녁으로 만들었던 삼겹살과 김치찌개 >



< 셰어하우스에서의 저녁 시간 >

진심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다

한 달이 지나고, 친구들과 처음보다 더 많이 가까워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침마다 같이 요가 하는 멕시코 친구, Ana, 캘리포니아 근교를 여행하는 미국인 친구, Kristina와 Jordan, 그리고 매일 밤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수다 떠는 친구 Jack까지! 친구들과 어떤 하루를 보낼지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외국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데에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친구들이 생기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유대감이나 세세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외국인인 한국인과 뭔가 다를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어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Jack이랑 매일 밤마다 식탁에 앉아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 나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뉴욕 월스트리트가에서 꼭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 하면 Jack은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주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이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니 힘들더라도 그만큼 즐기자는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dream support가 되어주기로 했었다.

어떤 날에는 회사에서 실수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 앞에서 평평 운 날도 있었다. 그때 Jack과 Ana가 꼭 끌어 안아주면서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들이 나에게 큰 응원이 되었고 친구들이 진심으로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할리우드 트래킹을 다녀온 날은 캘리포니아에서 베스트 순간으로 손꼽는 날 중 하나인데 그것은 Kristina와 Jordan과 함께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자주 뒤처지고 했는데 Jordan이 내 가방을 대신 들어주어서 수월하게 트래킹을 마칠 수 있었다. 또 서로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다. 친구들 덕분에 진심은 나누면 다 알아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언어보다 더 깊이 통하는 마음들이 서로를 더 가깝게 해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큰 감동으로 남아있다.



< Micro Teams 사용하기 >



< CEO에게 업무 진행상황 보고 >

[인턴활동]

최고의 인턴이 되기 위한 노력

Step 1. 회사의 Business Model과 Rule을 익히자.

내가 생각했을 때 회사에 가서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것은 그 회사의 Business Model을 익히고 회사만의 프로세스를 공부하는 것이다. 나는 금융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회사가 하는 일과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처음에는 주어진 업무 자체를 이해하기 바빴다. 이러한 고충을 인사팀 인턴에게 말하니 회사 매뉴얼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날부터 매뉴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고객에게 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산업'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받았던 업무를 보며 회사의 프로세스에 어떤 부분에 이 업무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향성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회사마다 소통 방식과 쓰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이것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로는 Microsoft Teams와 회사 데이터 베이스가 업로드 되는 CRM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회의가 잡히면 Teams에 등록해 놓지 않아서 지적을 받고 했었다. 지적을 받은 후에는 회사에서 항상 사용하는 Teams와 Inbox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하였다. CRM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한 파트 프로젝트가 끝난 후 업무가 제대로 업로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했기 때문에 구조를 익히려고 노력했었다.

Step 2. 적극성은 업무에 있어서도 최고의 능력

많은 프로젝트는 장비 항목을 다른 카테고리 분류하고 데이터화하여 올바른 카테고리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회사들이 같은 사항을 다르게 측정하면서 이자율과 이자 수익률 계산에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로 올바르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고, 가장 큰 문제였던 두 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정리한 후 불일치 항목들을 담은 'Air List'와 'Error List'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주 CEO와 회의를 진행하며 진행 사항을 보고 하였는데 더 효과적으로 우리 팀이 진행하는 일들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매주 PPT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CEO와 매주 영어로 회의를 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기를 수 있었고 회사에서 많은 업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PPT도 제작하고 팀원들과 회의 전에 미팅을 따로 진행하면서 일하는 능력 역시 기를 수 있었다.

Step 3. 우리 팀의 결과물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되다 !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함께 일했던 팀과 발표를 마치고 그 결과물을 최종 승인 받았을 때였다. 그 후 테크놀로지 팀에게 요청하여 변경된 카테고리 데이터를 업로드 하였고, 회사의 핵심 시스템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내가 만든 결과물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자산이 될 것 같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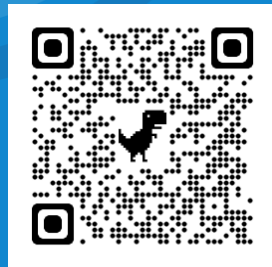
WEST 인턴십을 통해 나는 더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먼 미국땅에서 모든일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인턴십을 수료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시간들이었다.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 해내야 하는 시간들은 '내가 오늘도 또 해냈구나!'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씩 헤쳐나가는 내 자신을 보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해외 경험과 인턴십까지 선물해준 WEST 프로그램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WEST

PROGRAM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는 2008년 한-미 정상 간 상호 교류 합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체계적인 비즈니스 어학연수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대학생(청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해외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WEST 후기를 더 보고 싶다면?



<https://bit.ly/3GQnF1E>

[월드잡플러스 > 자료실 > 한미대학생 연수(WEST) 수기집]
☆ 공모전별/연도별 검색 가능 ☆